

#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대물림, 1400억 범죄수익 빼돌린 딸

### 암호화폐 시세 베팅 도박사이트 운영...배당 조작도 아버지 검거 뒤엔 총책 맡아 비트코인 차명 현금화 경찰, 1430억 중 250억 원 환수...공범·여죄 수사 중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시가 1400억여 원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를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

에서 번 비트코인을 빌린 지인 명의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의 평균치를 두고 이용자가 베팅,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돈(증거금)을 마진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딸 A씨는 아버지를 도와 불법 도박, 사실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관여했다. 또 유학 생활을 통해 영어에 능통,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각국 언어 버전으로 운영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태국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 국내로 압송·수감되자, A씨는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회수 등을 대신 맡으며 '운영 총책' 역할을 했다. 특히 국내 압송 직전 아버지로부터 현금화에 필요한 인출 암호(만능 키), 계좌번호 격인 전자지갑 주소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버지의 수감 직후 해당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1796개를 차명 현금화했다. 당시 거래가 기준 현금 14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환전에 성공한 돈은 아버지의 변호사 수입료,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A씨가 아버지 대신 범죄수익

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환수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환수 과정에서 누군가 미리 빼돌려 비트코인 320개(최고가 기준 현금 250억 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환수 도중 추가로 빼낸 범죄수익도 A씨 언니 등 가족 구성원이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공범·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의 어머니, 언니 등 가족 구성원 상당수가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서선욱기자



남해를 찾은 큰고니

13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 바다에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 'MB 여론조작' 배덕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 댓글 2만여건 게시하도록 지시 혐의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관 부대원들을 이용해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식(사진) 전 기무사령관에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장'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론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

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여론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 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댓글 약 2만여건을 부대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행동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는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

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대통령·정부를 비판한 계정과 기무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계정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코나스 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1심과 2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된 배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김재환기자

## 해남 오리농장 조류독감 항원 검출...3만5000마리 살처분

###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설정·이동중지 명령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긴급 방역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송지면 A육용 오리 농장에서 지난 12일 폐사 증가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올해 겨울 들어 전남지역 H5형 AI 항원 검출은 이번이 21번째다. 방역당국은 조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A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육용오리 3만5000마리를 살처분한다. 또 A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소독과 함께 임상 예찰을 한다.

A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농장 3곳에서 닭과 오리 1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남군 B 계열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H5형 AI 발생 건수는 나주 6건, 영암 4건, 무안 4건, 함평 3건, 곡성·고흥·장흥·해남 각각 1건씩 7개 시·군 21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